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체류 외국인 2백만 초과시대의 할 일

바야흐로 세계화의 시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작년 초에 이미 2백만 명을 넘어섰다.

출신국가들도 다양하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은 물론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 등으로. 이게 현실이다.

이제 인류는 한 가족이다. 다인종 국가가 되는 경우 이점도 많다. 인종 상호간의 문화 등 각종 교류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 수많은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성후손을 배양할 수도 있다.

현 시대의 경찰국가로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봐보자. 세계인종의 전시장이자 할 정도로 다인종 국가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물론 각종 특

기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다.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미국을 제외하고는 논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은 있어도 민족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는 이런 조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선진국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마냥 부러워만 했던 대한민국.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국내유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성장의 흐름을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등으로 들어왔다. 1990년 전후로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으로 유입된 수도 상당하다.

그 후 2000년대에는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결혼이민 등으로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했

다. 물론 여기에는 코리아드림을 좇아 입국한 동남아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크게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 일명 '똥세'라는 것을 부리며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말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백인은 선호하면서도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결혼을 매개로 이주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남아 출신들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까지 여과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다.

동남아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코시안'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극히 배타적 행위다. 과거

의 우리를 생각해보라. 못살던 시절 우리국민들도 하와이로, 중동으로, 독일과 스페인 등으로 먹을 거리를 찾아 떠났던 시절을. 그때의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도 똑같이 우리 땅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꼭 생계만을 위해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삶의 취향에 따르는 경우도 많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오늘날의 세계는 나날이 좁아져 가고 있다.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던 말이다.

때문에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듯이.

국내에 유입되어온 외국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배대하면 우리 국민들 역시 그들 국가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악순환은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 독소란 말이다.

때문에 작금의 시대를 보다 더 밝고 고운 사회로 가꾸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시대를 구가해야 한다. 자자 출혈 털어버리지. 고루한 생각들을. 대신 인류애를 발휘하자. 모두를 위해.

社說

‘촉법소년’ 대책 있어야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 처벌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5~2018년 광주와 전남에서 촉법소년 1631명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광주 815명, 전남 816명이다. 연평균 204명 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227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6년 137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15년 181명 △2016년 225명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으로 20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촉법소년 2만8024명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연평균 7006명, 하루 평균 약 20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220명 △서울 5912

명 △인천 1986명 △부산 1456명 △대구 1326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441명 △울산 684명 △강원 758명 순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1만7945명(64.0%)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1만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 등 4대 강력범죄가 2만159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도 1495명에 달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촉법소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비탈길 주차방법은 이렇게

비탈길, 경사로에 세워 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사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비탈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

세요. 주차할 때에는 자동차 기어를 P상태로 놓는데요. 각도가 높은 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임목이나 벽돌을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주세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P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는 물론, 고임목이나 벽돌을 놓아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내리막길 경우 고임목의 위치는 앞바퀴 앞쪽에 놓고, 오르막의 경우 뒷바퀴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 바퀴 방향을 다르게 틀어주세요.

우선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차량과 바퀴 방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리막길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방향으로 돌리고, 오르막길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전·후

방 범퍼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경사로로 굴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거 지역이 경사진 곳에 있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사로 주차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중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백희/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범죄구조상담 132
- ▲인명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